일주도로 뚫렸는데…그 많던 관광객은 어디로 갔을까

'블루오션'

다도해 <36>

제4부 전남의 섬, 섬사람들

신안편-흑산도<하>

흑산도의 볼거리는 너무도 다양하다. 섬을 하나로 잇고 있는 25.4㎞의 일주도로에 대부분의 자원들이 몰려 있다. 27년이 걸려 지난 2010년 완공된 이 일주도로 덕분에 관광버스를 통한 대량 수송이 가능하게 됐다.

진리의 당산, 전남문화예술재단 산하 전남문화재연구소의 무심사지 발굴 현장, 흑산도 본섬에서 가장 높은 상라산(227m) 전망대를 거쳐 지지대 없이 절벽을 지나는 '하늘도로', 동백나무 군락, 정약전 사당(복성재), 최익현 유허비(지장암) 등을 거쳐 예리항으로 돌아오는 경로를 취했다. 해안일주도로를 달리면서 볼 수 있는 바다의 풍경은 덤이다. 흑산도 본도와 부속도서인 영산도, 소장도, 대둔도, 다물도, 홍도, 가거도, 만재도 등을 둘러보려면 한 달이 걸려도 다 못 본다는 것이 최한웅(49·6급) 부면장의 우스갯소리다. 전국일주도 가능한 시간이지만, 하늘과 바다가 허락하지 않으면 제아무리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도 이들 섬을 둘러볼 수 없다는 의미다.

흑산도의 중심에 해당하는 진리의 당산은 지난 2009년 침입한 불청객, 솔껍질깍지벌레로 만신창이가 돼 있었다. 진리당과 용신당으로 구성된 이 당산에는 둘레 1m 50cm가 넘는 소나무들이 가득해 하늘을 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10억원'을 호가할 것이라는 이들 소나무 몇몇은 그 뿌리만 남았고, 하늘 가득 뒤덮었던 소나무 가지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었다. 벌레의 침입과 그것에 대한 부실한 대처는 100년 넘게 버텨온 '역사'를 속절없이 두동강이 내버렸다.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한창 발굴조사중인 무심사지 석탑으로 향했다.

무심사지는 흑산도가 고대부터 일본, 중국 등 서남해 해상항로의 중요 거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적이다. 3층 석탑의 흔적이 있는 이 절터 주변을 전남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소속 직원들이 한창 발굴조사중이었다. 이들은 이번 발굴조사 결과를 지난 11월 12일 신안 흑산도 고대문화 조명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했는데, 흑산도의 '과거'를 찾는 지역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 유적이 관심을 받기 전 주민들은 기와나 돌도끼 등 유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보관했으며, 그 이후 어디론지 사라졌다고 한다. 뭍과 한참 떨어져 있는 섬의 유물은 '대접' 받기 위해 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주민의 정식 입도 시기는 고려 초기지만, 진리 고인돌군이나 패총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동기 시기부터 흑산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상라산 정상에 가면 전망대가 있고, 이곳에서는 날씨만 좋으면 대둔도, 대물도, 영산도 등 주변만이 아니라 홍도, 가거도, 진도의 맹골군도까지 다 볼 수 있다. 반달 모양의 반월성의 흔적이 있는데, 장보고가 왜구의 방어를 위해 축조한 길이 2.3㎞, 높이 0.5~2m의 성이다. 성벽은 주변에 산재한 자연석을 이용했고, 전투의 흔적(피바위)까지 있으나 최근 곳곳이 허물어진채 방치되고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반대로 적극적인 복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 부면장의 설명이다.

전망대에 오르기 전에는 흑산도아가씨노래비, 이미자의 핸드 프린팅과 함께 정자인 상라정(象羅亭)이 있다. 이곳에서는 흑산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노래 '흑산도아가씨'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전망대에서 야유회를 온 부산의 한 회사 직원 30여 명을 만났는데, 이들은 오전 6시 30분 출발해 2시간만인 8시 30분 흑산도에 도착, 관광버스를 타고 유람중이었다.

'유방실'이라는 가명을 쓰는 버스기사 박현옥(여·51)씨는 "목포에서 시내버스를 10년 운전하다가 4년 전부터 흑산도에서 일하고 있다"며 "주말 한 때 3000명에 이르는 관광객들이 찾으면 1시간 30분짜리 코스를 아홉번이나 돈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상라봉 전망대에서 일주도로를 타고 가는 길에는 람사르 습지로 유명한 대장도와 소장도를 멀리서나마 볼 수 있다. 절벽에 기둥 없이 도로가 이어진 '하늘도로'를 지나 흑산도에서 가장 높은 문암산(405m)의 절경을 바라보며 곤촌리로 향했다. 마치 작은 월출산과 같이 바위산인 문암산 곳곳에는 풍란이 자생하고 있다고 한다.

곤촌리는 과거 밭이 없어 가난했지만 최근 전복 양식에 나서면서 '부촌'으로 거듭나고 있다. 오후 버스정류장에서 어린이집버스를 기다리는 아주머니들을 만나볼 수 있는 흑산도의 '유일한' 마을이다. 반면 파도가 높아 양식이 불가능한 흑산도의 가장 깊은 마을 심리는 자연산 전복, 소라 등이 유명하다. 지푸미 전망대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미역, 톳, 다시마, 멸치 등을 특산물하고 하고 있는 사리에 다달았다.

사리에는 자산어보를 쓴 정약전이 유배를 와 머물며 섬 소년들을 위해 지은 서당 '복성재'가 있다. 유배를 오긴 했지만, 언제 다시 '부름'을 받을 지 모를 양반은 섬 주민들에게는 모셔야 할 대상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자녀의 스승이었으니 정약전을 모시는 주민들의 마음가짐은 남달랐을 것이다. 조선 후기 한 양반의 16년 간 흑산도에서의 삶은 이 섬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줬다. 지금은 유배문화공원으로 조성돼 있는데, 정약전이 직접 쓴 '사둔서당'이라는 현판, 흑산도 유배 도표 등을 눈여겨볼만 하다. 특이한 것은 흑산도에 다녀간 '죄인' 가운데 정약전과 면암 최익현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괴한 짓부터 뇌물수수, 반역 등 절해고도에 올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천주교 신자였던 정약전 덕분인지 흑산도에는 지금도 여전히 천주교 신자가 많고, 성당과 공소도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흑산도 유배 문화의 양대 산맥인 면암 최익현은 1876년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되자 조약체결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흑산도에 왔다. 유배된 면암은 진리에 서당을 세워 후학을 양성하고 천촌마을 지장암에 '기봉강산 홍무일월(箕封江山 洪武日月)'이란 글씨를 손수 새겼다.

바다가 보이지 않는 흑산도의 유일한 마을 소사리를 지나 예리항에 도착하면 흑산도 일주는 끝이 난다. 예리항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기상악화 시 수많은 배들이 정박하면서 점포들이 큰 호황을 누렸다고 한다. 한 때 땅 1평에 600만~700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북적댔지만, 2000년대 들어 흑산도의 밤은 어두컴컴해졌다. 오후 8시가 넘어가면 노래방과 식당 등 몇몇 점포만 불을 밝힐 뿐 암흑으로 뒤덮이고, 주민들 역시 불경기를 체감하고 있다. 그 많은 관광객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증만 커질 뿐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흑산도 일주도로 주변 관광지

1 진리 당산
하늘 뒤덮던 100년 된 소나무
솔껍질깍지벌레 습격 막아라

2 무심사지 석탑
고대 日·中 등 해상 거점 유적
전남문예재단 발굴 조사 한창

3 상라산 전망대
장보고가 만든 왜구 방어 성벽

4 문암산
기둥없는 '하늘도로' 지나
'작은 월출산' 절경에 흠뻑

5 정약전 유배지 사리마을
자산어보 전망대·성당·유배공원

6 유배 양대산맥 면암 최익현
서당 세우고 후학 양성